

# 류현진 어깨에 다저스 운명이 걸렸다

###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원정서 충격의 2연패

### 내일 오전 세인트루이스 3차전 선발 등판

류현진(26)이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NLCS·7전4승제)에서 막다른 길에 몰린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최후의 보루가 됐다. 디비전시리즈 전적 3승 1패로 4년 만에 챔피언십에 진출한 다저스가 원정 1, 2차전에서 충격의 원정 2연패를 당하며 위기에 처했다. 다저스는 13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부시스타디움에서 열린 NLCS 2차전에서 에이스 클레이턴 커쇼를 울리기도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에 0-1로 졌다. 다저스는 12일 1차전에서도 2-2로 맞선 연장 13회말 1사 1, 2루에서 카를로스 벨트란에게 끝내기 안타를 맞고 2-3으로 졌다. 류현진은 15일 오전 9시 홈에서 열리는 3

차전에 선발 등판해 명예 회복에 나선다. 류현진의 어깨에 다저스의 운명이 걸린 것이다. 7일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 디비전시리즈 3차전에서 체면을 구긴 류현진은 부진을 만회할 기회를 잡았다. 류현진은 당시 3이닝 동안 안타 6개와 기록되지 않은 실책 2개를 저질러 4실점만 뒤조기 감관했다. 큰 경기라는 중압감 탓에 정규리그 때 보여준 꾸준한 모습을 잃은 류현진은 다시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포스트시즌 두 번째 등판을 준비하고 있다.

세인트루이스 타선은 정규리그에서 왼손 투수를 상대로 팀 타율 0.238에 그쳐 리그 15개 팀 중 13위에 머물렀다. 피츠버그 파이리츠와의 디비전시리즈에서도 좌완 투수에게 팀 타율 0.167을 치는 데 그쳐 류현진이 상대 약점을 잘 활용한다면 역대 한국인 빅 리거로 는 처음으로 가을 잔치 승 리를 챙길 수도 있다. /연합뉴스



지난 12일 목포 부주산 국제 클라이밍센터에서 열린 국제 스포츠클라이밍연맹(IFSC) 월드컵에 참가한 클라이머들이 인공암벽을 오르고 있다. 전남도 산악연맹 주관, (주)클링 후원으로 열린 이번 대회에서 김자인(노스페이스)과 민현빈(아디다스)이 남녀 리드종목 은메달을 차지했다. <주클링 제공>

## 한국 '클라이밍 간판' 김자인 목포월드컵 아쉬운 준우승

### 남자 리드 지난해 챔프 민현빈 2위

### 콜핑 후원... 30개국 120명 열띤 경쟁

한국 스포츠클라이밍의 간판 김자인(25·노스페이스)과 민현빈(24·아디다스)이 국제 스포츠클라이밍연맹(IFSC) 월드컵에서 시상대에 올랐다. 김자인(세계 랭킹 1위)은 12일 목포 부주산 국제 클라이밍센터에서 열린 대회 여자

리드에서 미나 마르코비치(슬로베니아)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리드는 높이 15m, 경사 90~180도의 인공암벽을 제한된 시간에 누가 더 높이 오르는지 겨루는 종목이다. 김자인은 올 시즌 앞서 열린 4개 월드컵에서 세 차례나 우승해 안방에서 큰 기대를 모았으나 어렵게 정상을 놓쳤다. 이와 함께 민현빈(세계 랭킹 4위)은 남자 리드에서 아마 사치(일본)에게 1위를 내주고 은메달을 획득했다. 민현빈은 지난해 목

포 월드컵에서 한국의 사상 첫 남자 리드 금메달을 획득했다. 전날 열린 속도 경기에서는 채성준이 남자부 19위를 기록하는 등 한국인 입상자가 나오지 않았다. 속도는 높이 15m, 경사 95도의 암벽을 빨리 완주하는 선수가 이기는 종목이다. 국제 스포츠클라이밍연맹(IFSC)과 (사)대한산악연맹(회장 이인정)·전남도·목포시가 주최하고 아도우터 전문 브랜드 콜핑

이 후원한 올해 목포 월드컵에는 슬로베니아, 오스트리아, 프랑스, 벨기에 등 30여개국 세계적인 기량의 선수 120여명이 참가해 난이도와 속도경기로 나눠 경기를 진행했다. <주클링 박만영 회장(올산 산악연맹회장)은 "이번 대회 후원을 통해서 등산 문화 발전은 물론 익스트림 스포츠 발전에도 기여를 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목포=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 PO행 넥센이나 두산이나

### 오늘 목동서 준PO 최종전

### 나이트-유희관 선발대결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진출 티켓이 걸린 마지막 경기에서 브랜든 나이트(38)와 유희관(27)이 운명의 대결을 벌인다. 넥센 히어로즈와 두산 베어스는 14일 오후 6시 서울 목동구장에서 열리는 준플레이오프(PO) 5차전에 나이트와 유희관을 각각 선발투수로 발표했다. 2차전까지 목동에서 연승을 달리다 잠실 구장에서 두산에 연달아 무릎을 꿇은 넥센은 다시 찾은 홈에서 '백기사' 나이트를 앞세워 플레이오프 티켓을 따내겠다는 각오다. 2연패를 당하며 준플레이오프에서 포스트시즌을 마감할 뻔했던 두산은 '늑의 미학' 유희관의 어깨에 리버스 스윙을 걸었다. /연합뉴스



<나이트> <유희관>

나이트와 유희관은 7월 23일 목동구장에서 이미 한 차례 선발 맞대결을 펼쳤다. 당시 나이트는 6이닝 6피안타에 2실점(2자책점)으로 승수를 쌓은 반면 유희관은 5.2이닝 동안 안타 6개를 맞고 3실점(3자책점)해 패전투수가 됐다.

## 호랑이 기초부터 새로 시작



### 8위 불명예 탈기 마무리 훈련 돌입

'호랑이 군단'이 새 출발선에 섰다. KIA 타이거즈가 13일 합평 기아벨리저스 필드에서 마무리 훈련에 돌입했다. 지난 4일 넥센과의 시즌 최종전에서 3-8 패배를 당하며 8위로 시즌을 마감한 KIA는 시즌 종료와 함께 짧은 휴식기를 보냈다. 10일 2군 선수단이 먼저 소집됐고 13일 1군 선수들까지 경기장에 복귀하면서 2014시즌을 향한 '호랑이 군단'의 첫걸음이 시작됐다. 오는 22일에는 일본 오키나와에 마무리 캠프가 차려지면서 본격적인 훈련이 진행될 예정이다. 신동열 감독은 "오키나와 캠프 전까지 코칭스태프 구성이 완료될 것 같다"며 "오키나와 캠프 선수단은 짧은 선수들 위주로 꾸렸다. 단점을 보완하는 데 주력하겠다. 투수들의 경우 컨디션이 훈련의 중심이 될 것이다. 견제와 수비 등에 대한 대비도 할 것이다. 야수들은 내·외야를 망라해서 수비 쪽에 집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송은범을 필두로 박경태·양현종·한승혁·심동섭 등 투수들이 오키나와 캠프에 참가하며, 류은재·김주형을 주축으로 해 안치홍·김선빈 등 야수들이 오키나와에서 구슬

땀을 흘리게 된다. 차기 안방마임을 향한 이홍우·백용환 두 신예 포수의 도전도 이뤄진다. 서재용·김진우·김상훈·이범호 등 고졸급 선수들은 국내에서 시즌을 마무리하게 된다. 김주찬과 김원섭은 재활조에서 부상탈출을 위해 속도를 낸다. 유현준 투수 차명진·원광대 내야수 강한을 등 2014시즌 신인들은 전국체전 일정이 끝나는 오는 24일 팀에 합류한다. 국내에서 체력 훈련을 거친 신인들은 오는 11월 초 오키나와 캠프에 합류해 프로 데뷔를 위한 준비를 하게 된다. KIA는 마무리 캠프 기간 동안 2013시즌의 실패에 대해 돌아보고 명예회복을 위한 마스터 플랜을 짤 계획이다. 훈련에 앞서 신동열 감독은 "팬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려서 죄송하다. 선수들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팬들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이를 만회하기 위해 노력하자. 여러 상황이 좋지 않은데 열정적으로 훈련하고 최선을 다해서 훈련을 진행해 팬들의 기대에 보답할 수 있도록 하자"고 선수들에게 당부했다. 2년 연속 포스트 시즌 탈락, 8위로의 대추락으로 인한 '자존심 회복'이 이번 마무리 캠프의 화두가 될 전망이다. /합평=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브라질에 한 수 배운 홍명보호 이제는 말리

### 내일 밤 천안서 평가전

### 이기는 해법 찾기 나서

'삼바축구' 브라질과의 평가전을 통해 월드컵 본선 무대에서 만날 강팀에 대비한 예방주사를 제대로 맞은 홍명보호(號)가 이번에는 아프리카의 복병 말리를 상대로 '이기는 방법' 찾기에 나선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15일 밤 8시 천안 종합운동장에서 말리와 평가전을 펼친다. 한국과 말리가 대표팀 평가전을 치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의 10월 두 번째 평가전 상대인 말리는 국제 축구연맹(FIFA) 랭킹 38위로 아직 월드컵 본선 무대에 올라보지 못했다. 2014 브라질 월드컵 아프리카 2차 예선 H조에서 세 차례나 우승해 안방에서 큰 기대를 모았으나 어렵게 정상을 놓쳤다. 이와 함께 민현빈(세계 랭킹 4위)은 남자 리드에서 아마 사치(일본)에게 1위를 내주고 은메달을 획득했다. 민현빈은 지난해 목

포 월드컵에서 한국의 사상 첫 남자 리드 금메달을 획득했다. 전날 열린 속도 경기에서는 채성준이 남자부 19위를 기록하는 등 한국인 입상자가 나오지 않았다. 속도는 높이 15m, 경사 95도의 암벽을 빨리 완주하는 선수가 이기는 종목이다. 국제 스포츠클라이밍연맹(IFSC)과 (사)대한산악연맹(회장 이인정)·전남도·목포시가 주최하고 아도우터 전문 브랜드 콜핑

## 광주FC, 상무전 4연패

광주 FC가 13일 상주 시민운동장에서 열린 상주 상무와의 K리그 챌린지 28라운드 경기에서 1-2 패를 기록했다. 4번의 대결에서 모두 패배를 기록하면서 상주전 4연패에 빠졌다. 4연승 도전도 실패로 막아 내렸다. 올 시즌 세 번의 대결에서 승점을 가져가지 못했던 광주는 최근 상승세를 앞세워 설욕전에 나섰다. 하지만 이상형의 발을 막지 못했다. 상주의 골잡이 이상형이 전반 15분에 이어 전반 종료로 앞에 두고 10·11호골을 연달아 넣으면서 승리의 주역이 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대한야구협회장기 고교야구 초대 우승팀은?

### 오늘 덕수고-청주고 맞대결

### 실책에 운 동성고 결승 좌절

대한야구협회장기 초대우승팀을 놓고 덕수고와 청주고가 대결을 벌인다. 제1회 대한야구협회장기 전국 고교야구 대회의 결승전이 14일 오후 2시 무등경기장에서 열린다. 청룡기 우승팀 덕수고가 다시 한번 우승에 도전하고 청주고가 창단 후 첫 우승을 노린다. 덕수고는 13일 열린 준결승에서 7-7로 맞선 9회 밀어내기 볼넷으로 점수를 뽑아내며 8-7 승리를 확정지었다. 아랍고는 청룡기 결

승에 이어 리턴매치에서도 마운드 난조에 패배의 눈물을 흘렸다. 안방에서의 우승을 노렸던 동성고는 실책 패배에 속어 청주고에 결승 티켓을 내줬다. 청주고 선발 황영국이 1회 조기 강판되면서 초반 기싸움에서 동성고가 앞섰지만 불안한 수비와 타선의 집중력이 문제였다. 예이스 박규만이 빠진 동성고는 1회 접은 5-1의 리드를 지키지 못하면서 5-6으로 재역전을 허용했다. 올 시즌 새로운 강자로 떠오른 청주고는 '전통의 강호' 덕수고를 상대로 창단 첫 우승에 도전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